

# 아시아인 삶과 문화 '예술'에 담다

ACC, 15~24일 아시아문화주간  
13개국 50개 부스 21개 프로그램  
전통 공예품 판매·주거·음식 체험  
전통 음악·무용 등 이색 공연도

유구한 전통을 가진 아시아 문화와 미술, 공연 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 성전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은 '2023 아시아문화주간'을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에 걸쳐 ACC 일원에서 연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함께 가는 아시아, 동행'인데 아시아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부스와 전통공연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문화광장 일원에서 아시아 13개국 50여 개 체험부스 및 광주청년주간 부스를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아트마켓도 진행되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이동식 천막집 '유르트(Yurt)'나 인도 차이티, 태국식 커피 등 주거 및 식·음료문화를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동방의 신묘함을 담아낸 이색 공연도 준비돼 있다. 오는 17일 펼쳐지는 '올 데이 인도네시아'는 하루 내내 진행되는, 아세안 10개국 전통 음악인이 모인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채워진다. 인도네시아 언어로 '두드린다'를 뜻하는 '가말(gamelan)'에서 유래한 청동제 타악기 '가말란(Gamelan)' 장인 등의 협업과정을 그려낸 영화 '발리: 천상의 울림'도 야외 무대(예술극장)에서 상영한다.

오는 22~24일 이틀 동안 '아시아무용커뮤니티'가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풍부함을 더한다. 동남아



지난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주간' 공연 장면. (ACC 제공)

무용을 영상으로 즐기는 스크린 댄스부터 아시아 심포지엄, 방글라데시 민속무용공연 등에서 동남아 지역 문화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디어월 및 극장3에서 진행.

23~24일(예술극장 극장1)에는 ACC 국제공동창제작공연 '남편 없는 부두'도 관람할 수 있다. 동명의 베트남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번 공연은 전후 고통 속에서 삶의 양지를 개척해 나가는 인류의 의지를 그려 낸다. '강(江)이 있는 한 끝까지 나는 노래'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물'을 매개로 인류 사적 아픔을 위무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한편 행사 일환으로 선보이는 두 편 전시회도 눈길을 끈다. 인도, 인도네시아 각국과 함께 펼쳐지는 '아시아 파노라마'전은 황인숙(한국), 인디게릴

라(인도네시아), B. Ajay(인도) 작가가 참여하는데, 60m 정원에 벽화 형식으로 작업물을 선보인다. 또 야외에서 열리는 '하늬풍경' 전시회, 문화창조원(북한전시6관)에서 펼쳐지는 '일상점화'전은 서아시아예술을 광주시민들이 향유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술극장 로비 오픈홀에서 진행되는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극장과 전시관의 '틈'을 활용한 전시회로 이은 정, 유지원 작가가 참여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 기호와 일정에 맞는 행사에 참여해 아시아 문화를 향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빛고을 기악대제전' 대통령상 김윤희 씨

명인부 관악 박혜원·병창 임종복 씨 등 대상



빛고을 기악대제전 무대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김윤희 씨가 가야금 산조를 공연하는 모습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제공)

국악인들의 종합제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명인부(현악 부문)에서 전북 출신 김윤희 씨가 가야금 연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상금은 1500만 원.

(사)한국전통문화연구원(이사장 황승욱)은 지난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일 '제22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성료했다. 전국 현악, 관악, 병창 등 분야 국악인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명인부, 일반부, 초중등 및 대학부 등으로 나누어 경연을 펼쳤다.

명인부 대상에 박혜원(관악 부문), 임종복(병창 부문) 씨가 선정됐으며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부는 김형진(관악 부문) 씨가 종합 대상에 선정됐고, 고등부 박리원(관악), 이지영(현악) 학생이 교육부장관상과 문체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전야제 풍부한 레퍼토리로 전야제 공연도 마무리했다. 황승욱·박지훈·이은비(소리), 김태영·박시양(고수) 등과 금의연주단이 무대에 올라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등을 선보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스트리트 댄스·타악기 배울 사람 모여라

광주문화재단, 12일까지 '1020 문화주간' 참가자 모집



2022년도 1020 문화주간에 진행된 일일클래스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기획된 '1020 문화주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예술단체 빛고을댄서스, 얼수와 함께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일예술클래스에 참여할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1020 문화주간 프로그램인 일일예술클래스는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문화예술(타악) 장르로 나눠 9월 셋째~넷째주 동안 총 3회(5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10대~20대(1995~2009년생) 이

주인, 외국인, 유학생 포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차별 20명씩 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빛고을댄서스는 광주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댄스팀으로 2022년 스트리트 댄스 파이터에 출연한 엠비셔스의 리더 오전희 결정했다. 얼수는 전통문화인 풍물의 대중화를 위해 창단된 전문 타악그룹으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8호인 광산농악보존회의 교육보조이자 이수자, 전수생들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062-670-7447, 744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伊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명작 감상

광주시네마테크, 광주극장서 다음달 3일까지 회고전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천착하면서 할리우드를 비판했던 '네오리얼리즘(neorealism)'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필두에 섰지만, 독창적 작품세계를 개진한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명작선을 감상하는 기회가 찾아온다.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페데리코 펠리니 회고전'을 광주극장에서 연다. 펠리니(사진)의 논쟁적인 작품과 이에 경도된 후속세대의 작품들은 '펠리니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이니, 영화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 셈. 이번 회고전은 펠리니 사후 30주년을 맞아 데뷔작부터 수상작, 중·후기작 총 9편을 상영해 펠리니 영화의 가치를 반추해본다는 계획이다.

먼저 데뷔작 '다양한 불빛'을 감상할 수 있다. 1950년 개봉적인 이 작품은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펠리니가 유랑극단주 체코 달몬트와 얽히고설켜 가는 과정에서 사랑과 파멸적 낭만을 담았다. 이어 세계적 명성을 구가하게 한 '비텔로니'는 펠리니의 자전적인 작품인데, 베니스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펠리니에게 두터운 아성을 쌓게 했다. 이어 서커스극단과 곡예사 이야기를 담은 '갈'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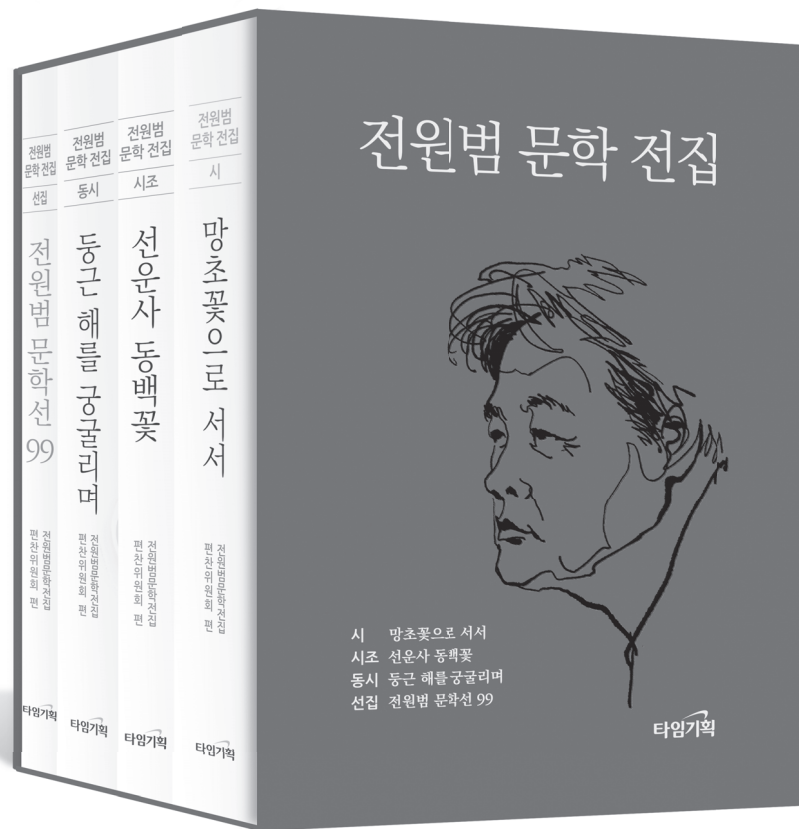
'카비리아의 밤'은 사랑을 찾아 떠나는 매춘부가 배신당하면서 타락하는 영혼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작품 분위기는 어둡고 테카당스(퇴폐)적이다.

이어 '달콤한 인생'은 사교계 가스에 얽힌 이야기이며 '로마'는 그의 영화 속 상징들처럼 나태와 음울로 가득 찬 팍스 로마나(태평 로마) 같은 1930년대 로마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이외에도 '8과 1/2', '영혼의 줄리아'와 '사티리콘'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시네토크 자리도 두 번 마련된다. 영화수입사 '일 미디어'의 홍재완 대표가 오는 16일(오후 2시 40분) '펠리니의 영화세계'를 주제로 강의하며, 22일(오후 7시)에는 김희정 감독이 펠리니 작 '8과 1/2'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 문의. /최류빈 기자 rubi@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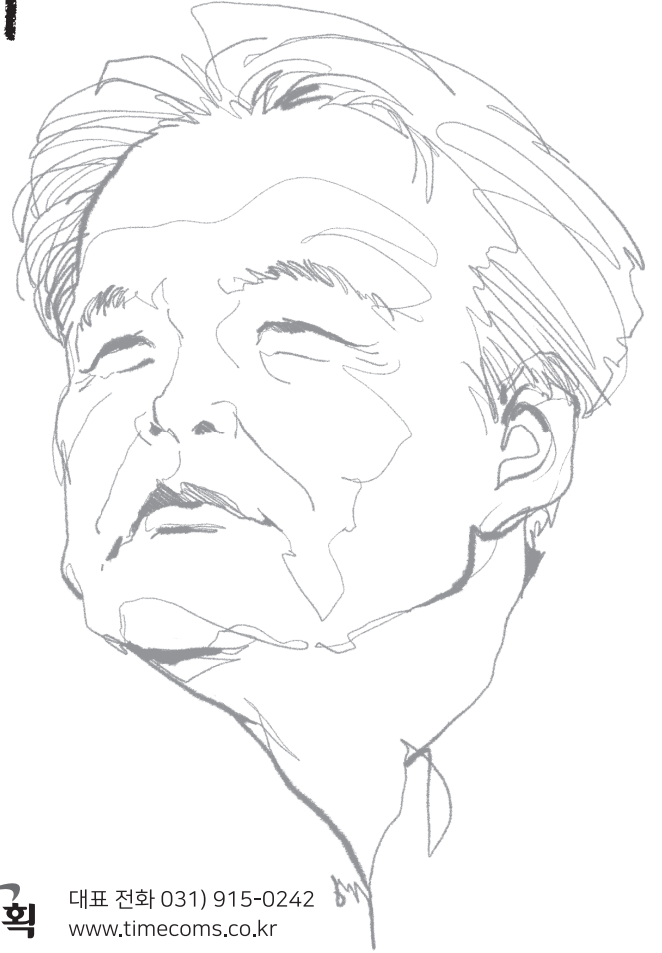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